

복합화력발전시스템과의 발전원가 비교에 의한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論 文

48A - 3 - 10

Economic Evaluation by Compar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BESS) and Conventional Combined Cycle of Power Generation Cost

金 應 相*, 金 志 元**
(Kim Eung-Sang, Kim Ji-Won)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economic evaluation of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BESS)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Application target is decided on conventional combined cycle of domestic and we analyzed economics that compared conventional combined cycle with power generation cost in development and the commercialized in case that establish it on utility and customer, urban and rural. The result shows that about the same conventional combined cycle of Anyang, Bundang and Pyeongtak but more economical than Seoincheon conventional combined cycle. And, in case of capacity enlargement and using the maintenance free battery more economical than conventional system.

Key Words : 경제성 분석, 복합화력발전, 전지전력저장시스템, Economic Analysis, Conventional Combined Cycl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1. 서 론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력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전력회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중의 하나이며 기존 형태의 발전소나 송전설비의 확장은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설치반대와 재원 확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므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1997년 12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총회에서 CO_2 배출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감축 목표 설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CO_2 배출량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체에너지전원의 개발 및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기동성 및 부하 추종 운전특성이 우수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실용화 및 보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이라고 판단된다[1]. 지금까지 이들 전원 중 주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한계공사비 설정방법에 의한 검토[2], 양수 및 복합화력발전시스템과의 비교 검토에 의한 방법[3], 투자비 회수방법에 의한 경제성 검토[4] 및 경

제성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5] 등이 국내·외적으로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이론에 바탕을 두었으며,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만 경제성 검토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실제의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을 국내의 실정에 맞춰 실용화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주로 첨두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시스템과의 발전단가 비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적용대상을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분산배치용과 단독수용가 용으로 구분하여 개발시 및 상용시에 대해서 1MW/4MWh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인용된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지금까지 활용한 적이 없는 정성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선행 연구에 의해 활용하였던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변경이 가능한 수치는 국내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 BESS의 발전비용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BESS의 용량은 크게 200kW, 500kW, 1MW 및 10MW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단독수용가 및 배전용 변전소에 설치할 분산배치용 1MW/4MWh급 BESS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발전비용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때 발전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

2.1 BESS의 고정비

고정비는 건설비와 고정발전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건설비는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능력을 측정하는 용량비용으로 고려되며, 여기에는 감가상각

* 正會員 : 韓國電氣研究所 先任研究員

** 正會員 : 韓國電氣研究所 研究員

接受日字 : 1998年 11月 20日

最終完了 : 1999年 1月 26日

② 전지교체비

전지수명은 충·방전 횟수인 Cycle로 나타내는데 현재 DOD(Depth of Discharge : 방전심도)를 55%로 했을 때 기대되는 수명은 1800-2000 Cycle로 년간 운전횟수를 250 Cycle로 가정했을 때 8년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지기술개발의 발달과 전지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수명연장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되며, 일단 본 논문에서는 10년으로 가정했으며, 전지이외의 시스템 설비의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30년으로 가정했다.

2.2 BESS의 변동비

전력저장전지시스템의 변동비는 전력저장에 필요한 발전비용과 운전유지비등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는 미세하기 때문에 주로 저장용 전원에 대한 비용으로 본다.

2.2.1 저장용 전원 발전원가

본 시스템은 심야 기저 부하시에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주간 최대 부하시나 필요시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발전원가는 심야전력요금(23.2원/kWh : 1998년 1월 1일 시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3. BESS의 평준화 발전원가

BESS에 대한 총 발전비용은 고정비 및 변동비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고정비는 건설비 및 반복고정비로 나누어지며 반복고정비는 고정운전유지비, 연료저장비 및 전지교체비, 변동비는 저장용 전원 발전원가, 변동운전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하루 방전시간은 4시간, 연간 평균 운전 Cycle 수는 250회로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BESS 발전원가는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평준화 발전원가} &= \text{고정비} + \text{변동비원가} \\ &= \frac{\text{건설단가} \times \text{고정비율}}{\text{연평균운전시간} \times (1 - \text{용량감소율})} \\ &\quad + \frac{\text{저장용전원발전원가}}{(1 - \text{손실율}) \times \text{저장효율}} \end{aligned} \quad (1)$$

3.1 1MW/4MWh 급 BESS의 고정비율

고정비율이란 고정비의 BESS 총 투자비에 대한 비율로 자본비(투자수익), 감가상각비, 보험료, 법인세 및 제세, 운전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3.1.1 투자수익 및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경제성 검토시 투자수익률과 감가상각율의 합을 자본회수 계수로 가정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8%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회수 계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 식 (2)와 같다.

$$\text{자본회수계수} = \frac{r}{(1+r)^n - 1} \quad (2)$$

여기서, n은 내용년수, r은 할인율을 나타낸다.

표 5 BESS의 자본회수계수

Table 5 The coefficient for the revision of capital of BESS

설비내역	내용년수(n)	자본회수계수(%)
BESS 설비(전지외) 전지	30년 10년	8.25 8.82

3.1.2 보험료

자산가액은 부보자산과 비부보자산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는 초기투자비를 말한다. 비부보자산이란 화력발전소의 경우 토지 및 무형 고정자산을 의미하고, 수력의 경우에는 토지, 수로, 도로, 철도 및 교량 등을 포함하나 BESS에서는 건물 용지비를 말하며 보험 요율은 3/1000으로 보았다.

표 6 BESS의 내용연수 동안 평균 자가보험율

(단위: \$/kWh)

Table 6 The average ratio of self guarantee for the durable years of BESS(unit: \$/kWh)

시점	지역	자산가액	비부보자산 (건설용지비)	부보자산	부보율 (%)	자가보험율 (%)
개 발 시	도	1,222	101	1,329	92.93	0.28
	지 방	1,190	63	1,329	100	0.3
상 용 화	도	652	51	709	93.28	0.28
	지 방	636	32	709	95.68	0.29

3.1.3 법인세 및 제세

고정비에 고려되는 세금에는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법인세는 세전 순이익의 5%를 적용하며, 주민세는 법인세의 7.5%가 되므로 세전 순이익의 $5\% \times 0.075 = 0.375\%$ 이다. 그러므로 합은 5.375%이다. 자기자본 수익율을 9%로, 자기자금비율을 50%로 가정하고 법인세 및 제세에 대한 내용연수 동안 연간 평균 고정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법인세 및 제세에 대한 내용연수 동안 연간 평균고정비율} &= \frac{\text{세전순이익에 대한 세율}}{1 - \text{세전순이익에 대한 세율}} \times (\text{자기자금비율}) \\ &\quad \times (\text{자기자본수익율}) \times \frac{n + (n-1)D}{2n} \\ &= \frac{0.05375}{1 - 0.05375} \times (0.5) \times (\text{자기자본수익율}) \\ &\quad \times \frac{n + (n-1)D}{2n} \end{aligned} \quad (3)$$

이때, n은 내용연수, D는 감가상각율($1/\text{내용연수}$)이다.

표 18 복합화력 발전시스템에 대한 BESS 발전원가의 비율

Table 18 The ratio of BESS generation basic cost for conventional combined cycle

대상	시점	BESS ÷ 평택복합	BESS ÷ 서인천복합	BESS ÷ 안양복합	BESS ÷ 분당복합		
		도시	지방	도시	지방	도시	지방
배전용	개발시	0.83	0.82	2.98	2.94	1.67	1.65
변전소	상용시	0.57	0.56	2.05	2.02	1.15	1.13
단독	개발시	0.84	0.83	3.0	2.96	1.68	1.65
수용가	상용시	0.58	0.57	2.06	2.03	1.15	1.14
						1.46	1.43

상기 표에서는 1이상이면 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 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설비용량이 1,880MW인 서인천 복합화력의 경우 다른 복합화력 발전시스템의 발전원가와 비교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설비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원가는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0MW이상이 되는 복합화력 발전시스템과 1MW BESS와 발전원가를 절대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유추는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용화된다면 충분히 설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력저장전지시스템의 실용화 및 보급화에 앞서서 경제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개발중인 시스템의 용량은 주로 국내에서는 1MW급, 선진국에서는 수 MW급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MW급 저장시스템을 전력계통에 도입하는 경우 복합화력발전시스템의 발전원가와 비교하였다. 또한 설치대상은 변전소용 및 독립수용가용과 도시 및 농촌으로 구분하여 개발시 및 상용시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MW급 BESS가 본 논문에서 비교대상으로 한 안양, 분당 및 평택 복합화력발전시스템과는 비슷한 경쟁력을 갖지만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시스템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용량을 좀더 확대한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지를 Maintenance Free 형태로 제작하여 스택식으로 설치하므로써 용지비용 즉 건설단가의 감소 또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현

- [1] EPRI Report AP-5845, "Design and cost for a generic 10MW utility lead-acid battery energy storage plant", EPRI, June 1988, P2123-6.
- [2] D. W. Sobieski and M. P. Bhavaraju, "An Economic Assessment of Battery Storage in Electric Utility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Power Apparatus and Systems, Vol. PAS-104, No. 12, pp. 3453-3459, December 1985.
- [3] R. C. Reckrodt, M. D. Anderson, R. M. Kluczny, "Economic Models for Battery Energy Storage :

"Improvements for Existing Methods", IEEE Transactions on Energy Conversion, Vol. 5, No. 4, pp. 659-665, December 1990.

- [4] EPRI Report EM-3872, "Updated Cost Estimate and Benefit Analysis of Customer-owned Battery Energy Storage", EPRI, January 1985, P2154-9.
- [5] 김용상 외,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경제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 Vol 10, No. 5, pp 75-82, 1996. 10.

지 자 소 개



김 용 상(金 應 相)

1962년 6월 21일 생. 1988년 서울산업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1991년 충실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97년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박). 1991년~현재 한국전기연구소, 배전연구팀장



김 지 원(金 志 元)

1971년 9월 20일 생. 1994년 서울시립 대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96년 광운대 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석사). 1996년~현재 한국전기연구소 연구원